

성접촉을 통한 감염

전파경로는 유럽, 미국 등지에서는 동성애에 의한 경우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성 간의 성접촉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 세계적 추세는 이성 간의 성접촉을 가장 중요한 전파경로로 본다.

HIV는 성행위중 감염되지 않은 사람 몸 안으로 감염인의 정액 또는 질 분비물 그리고 혈액 등이 들어감으로써 감염된다. HIV는 정액과 자궁경부, 질 내에서 발견되며 성병에 의한 임종 소견이나 생식기 전막의 궤양, 그리고 성기에 상처가 있을 때 더욱 잘 전파된다. 따라서 감염된 사람과의 성교를 가질 때, 향문이나 구강을 사용한 성교를 포함한 동성 간의 성행위뿐 아니라 이성 간의 성행위도 위험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여성은 해부학적 특성상 남성보

다 8배 정도 감염가능성이 높다.

감염인과 한 번의 성접촉으로 HIV에 감염될 확률은 0.1~1%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HIV 감염인의 97% 이상이 성관계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성접촉이 얼마나 HIV 확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알려준다.

감염된 혈액의 수혈 또는 혈액제제 사용

HIV에 감염된 혈액을 직접 정맥에 수혈 받거나 감염인의 혈액에서 생산된 혈청이나 혈액제제를 부여받는 경우에도 감염된다. 그러나 근래에는 수혈에 사용되는 혈액에 대하여 철저한 감염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빈도는 40,000~200,000명당 한 건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 일단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으면 95~100%가 감염될 수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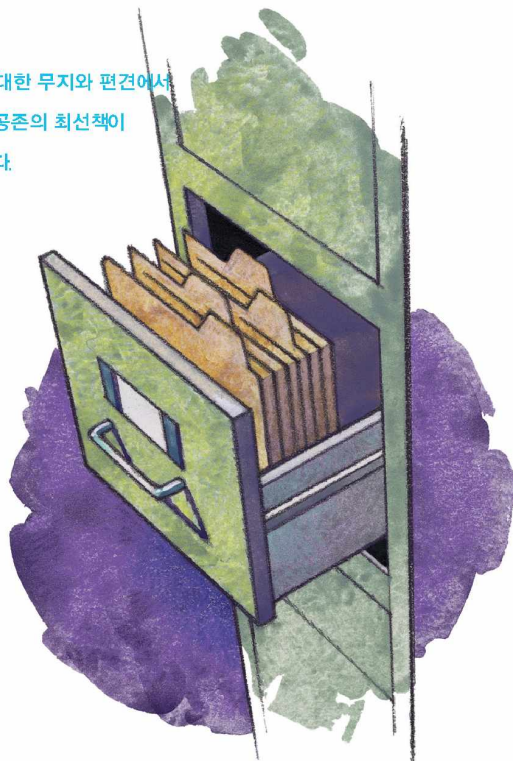
HIV감염경로

우리는 흔히 에이즈에 대해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 공포는 에이즈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온 것으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는 길만이 예방과 전파 방지, 감염인과의 공존의 최선책이 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HIV의 여러 가지 전파 경로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 편집 실

핵심 체크!

- HIV전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① 탈출 - 바이러스는 꼭 감염인의 몸에서 나와야 한다.
- ② 생존 - 몸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는 생존 가능한 환경에 있어야 한다.
- ③ 진입 -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의 혈관이나 점막내로 들어가야 한다.
- ④ 충분한 양 - 감염이 되려면 충분한 숫자의 바이러스가 있어야 한다.





처음에 들어간 바이러스의 양이 많기 때문에 증상이나 에이즈환자로의 진행 등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혈, 농축적혈구, 현소판, 백혈구, 혈장 등의 혈액성분을 수혈할 때 역시 HIV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감마 글로부린, B형 간염 면역 글로부린, 혈장 추출 B형 간염백신을 통해서 는 감염되지 않는다.

HIV에 감염되지 않는 경우

- 식탁에 같이 앉아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
- 서로 만지며 껴안고 악수를 하는 등의 피부접촉
- 모기나 벌레를 통해
- 가벼운 키스
- 머리빗, 침대 시트 등 공동사용
- 목욕탕이나 화장실 변기 공동 사용
- 식기의 공동사용
- 에이즈 환자의 간병
- 감염인의 체액이 묻은 물건
- 감염인의 구토물을 통해

의료행위 중 감염

감염인을 치료하거나 의료 시술을 하다가 의료진이 감염될 가능성은 있다. 오염된 바늘에 찔린 후 HIV에 감염되는 비율은 0.3%로 B형 간염에 감염되는 비율 20~30%에 비하면 1/100 정도로 낮다. 침묵이나 손상된 피부가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전파될 수 있으나 그 확률은 오염된 바늘에 찔린 경우보다 더 낮은 것

수직감염

감염된 신생아 및 소아의 90%가 감염된 임마에게서 태어났다. 임신 중 태반을 통해 감염되거나, 분만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초유와 모유를 통한 감염도 가능하므로 감염된 산모는 수유를 금해야 한다.

에이즈 증상이 있는 모체 또는 CD4 양성 림프구 수가 적은 산모에게서 전파가 잘되며 임신 중 HIV에 감염된 경우 바이러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태아로 감염되기 쉽다. 현재 수직 감염으로 전파될 확률은 약 25~30% 정도로 보고 있다.

으로 알려져 있다.

일상생활 중의 감염

상처를 통한 감염은 정확한 감염인의 바이러스 혈중 농도에 따라, 상처의 깊이와 크기, 그리고 상처에서 혈관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IV는 상처가 없더라도 우리 몸의 전막(위안, 생식기, 질점막, 위장벽 등)에 침투한 경우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 감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전막부위는 남성 성기끝의 요도점막, 질점막 등이다.